

三毛 (陈平) 와 전혜린의 생애와 작품을 통해 본 노마디즘(Nomadism)의 同质性 연구

2015급 비교문학 석사연구생 김미란

목 차

1. 들어가면서
2. 三毛와 전혜린의 노마디즘적 동질성
3. 동질성의 원인
4. 두 작가의 동질적 노마디즘이 주는 의미
5. 나가면서

1. 들어가면서

1791년 영국의 윌스턴 크레프와 프랑스의 구즈에 의해 시작되었던 여권 운동을 통해 여성들의 지위와 권위를 부르짖었던 서구 여러 나라들에 비해, 동양권에 속한 나라들에서는 20세기에 들어서까지도 여전히 여성들에 대한 사회 진출과 고정 관념 그리고 불평등이 심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관념의 부당함에 안주하지 않고 과감히 유목민적인 정신으로 길을 헤치고 자신의 의식이 지향하는 새로운 정신적인 목초지를 향해 길을 나섰던 여성들의 삶이 있었다. 서양에서와 같이 사회적 개혁을 위한 운동으로 등장했고 또는 자신들이 가진 의식을 그들만의 표현 방법인 문학, 음악, 미술 등 다양한 분야에 나타냈고 때로는 실제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도 표출하였다. 이러한 작가 의식은 그 시대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고 그러한 경향은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살았던 대만의 三毛 (陈平) 와 한국의 전혜린이라는 두 여성 작가의 문학 작품에 나타나는 의식 세계와 삶에 대한 행동 양식을 노마디즘(Nomadism)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고, 비교 문학의 수평 연구 중에서 작가 연구의 방향으로 논하여 본다. 그리고 그들의 노마디즘적 생애와 작품들이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노마드(Nomad)는 유목민, 유랑자를 뜻하는 단어이다. 여기에서 유목민이란 중앙아시아

와 몽골 초원 그리고 사하라 사막 등의 건조지역에서 목축을 업으로 삼아 풀과 물을 찾아 다니면서 생활 하는 무리를 말한다. 오늘날에는 이 개념이 변이되어 디지털 기기를 들고 다니며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이버 세계를 누비는 사람들을 지칭하기도 한다.

몽골 제국의 영웅이었던 칭기즈 칸(成吉思汗)의 묘비에는 “성을 쌓는 민족은 망하고, 길을 뚫는 민족은 흥한다.” 라는 글이 적혀 있다고 한다. 이것은 폐쇄적이 되지 말고 개방적이고 진취적으로 전진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노마드의 정신을 잘 표현하고 있다.

노마드라는 용어는 프랑스의 철학자 들뢰즈(Gilles Deleuze)가 그의 저서 《차이와 반복 (1968)》에서 노마드의 세계를 '시각이 돌아다니는 세계'로 묘사하면서 현대 철학의 개념으로 자리잡은 용어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유래된 노마디즘은 한국의 철학자 이진경이 들뢰즈의 저서 《천(千)의 고원 (1980)》을 강의하면서 남긴 글을 정리하고 보충해서 2002년 출간한 책의 제목이다. 유목주의로 번역되는 노마디즘(Nomadism)은 기존의 가치와 삶의 방식을 부정하고 불모지를 옮겨 다니며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내는 노마드의 삶과 같은 일체의 방식을 의미한다. 이것은 철학적 개념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의 문화·심리 현상을 설명하는 말로도 쓰인다.¹

이 연구에서 페미니즘과 노마디즘이 개념상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페미니즘이 광범위한 의식 세계를 의미한다고 할 때, 노마디즘은 그 의식 세계를 실천하려는 일련의 방법론의 하나로 채택하여 분석했다.

2. 三毛와 전혜린의 노마디즘적 동질성

노마디즘의 관점에서 본 두 작가의 생애와 작품에 나타나는 동질성은 아래의 네 가지 방향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두 작가는 그들이 속해있는 사회의 통념과 보편성을 뛰어넘었다. 그것은 보수적인 의식에 대한 새로운 관념과 삶에 대한 도전이고 개척이었다. 여성이라는 신분에 대한 불합리한 통념과 새롭게 대두 되고 있던 사상과 철학에 근거한 의식이 싹트지 못한 국내 상황이 그들을 지속적인 유랑으로 나서게 했다.

둘째, 한 인간으로서 끊임 없이 삶을 던치는 불행과 거기서 파급되는 고통을 겪었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당당히 이겨내며 새로운 길을 뚫고 나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과 자의식의 좌절 그리고 특정한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상처 속에서 자살까지도 시도해보지만 다시 자리를 건너차고 길을 나서는 유목민적인 강인함을 보여주었다.

셋째, 두 사람이 각기 걸어갔던 삶과 거기서 잉태된 작품들은 새로운 관념으로 일반화 되었고 그것이 대중에게 또 하나의 삶의 방식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당시로서는 쉽지 않

¹ [네이버 지식백과] 노마디즘 [nomadism] (두산백과)

있던 여성의 외국 유학과 취업 그리고 그러한 남다른 경험들과 사색의 결과를 작품을 통해 발표하고 독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냈다. 그 독자들은 작가의 특정한 의식과 삶의 방식에 동조하고 때로는 열광하기도 했으며 젊은 의식의 한 모델로 여기게 되었다.

넷째, 두 작가는 질긴 노마드의 삶을 추구했으나 결국 자살로 삶을 마쳤다는 공통점이 있다. 자살마저도 그들만의 선택적 노마디즘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끝까지 붙들고 왔던 자의식의 좌절이라고 하겠다. 전에도 심한 좌절과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다시 일어나 추스리고 또 걸어가던 삶이었다. 그러나 결국 그 발걸음은 죽음으로 마치게 되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두 작가의 삶과 작품들을 통해 이러한 노마디즘적 동질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만의 여성 작가인 三毛의 본명은 陈平이다. 三毛는 필명인데 그녀가 매우 좋아했던 張樂平의 《三毛流浪記》²라는 만화에서 유래했으며, 자신의 글이 三毛 정도의 가치 밖에 되지 않는다는 의도로도 사용한 것이다.

三毛는 1943년 重庆에서 태어나 변호사인 아버지를 따라 대만으로 이주하게 된다.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녀는 책 읽기를 유난히 좋아했다. 그러나 학교에 진학한 후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고, 그 대신 독서에 더 열중하였는데 때로는 읽은 작품에 몰입되어 통제가 어려울 정도였다고 한다.

1955년 중학교 2학년 첫 시험에서 4과목이나 낙제한 三毛는 유급이 두려워서 모든 과목의 교과서를 외우다시피 공부하였고 수학도 모의고사 문제들을 모두 외워 좋은 성적을 얻었다. 이를 이상히 여긴 수학 선생님은 다른 문제를 풀어보게 했고 당연히 풀지 못하자 三毛가 컨닝한 것으로 오해하고 얼굴에 먹으로 동그라미를 그리고 일주일 동안 운동장을 돌게 하는 등 자존심에 큰 상처를 주었다.³

이 사건을 겪으면서 三毛는 자폐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이를 알게 된 부모는 그녀를 자퇴시키고 치료를 시작하면서 집에서 독학시킨다. 그러나 그녀의 불안증세는 심해지고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한다. 그러다가 꾸푸성이라는 화가에게 유화를 배우게 되면서 자폐의 치료뿐만 아니라 문학의 길을 걷게 된다. 꾸푸성의 친구를 통해 三毛의 처녀작인 《惑》를 《현대문학》에 발표하게 된다. 이어서 《異國之戀》, 《月河》등의 소설을 발표한다.

그녀는 대만의 중국문화학원(현재, 중국 문화대학) 철학과에 입학한다. 그러나 끊임없이 정신적 방황을 하게 되고 얄친 데 덮친 격으로 첫사랑에 실패한다. 그 아픔을 잊기 위해 스페인의 마드리드 대학으로의 유학을 결심한다. 그 후 독일 괴테협회⁴에서 독일어 공부를 마친 뒤 미국 시카고의 한 법률회사에 다니다가 1972년 대만으로 돌아와 독일어 강의를 하게 된다. 그러면서 만난 독일인과 약혼을 하게 되지만 결혼 전 약혼자가 갑작스러운 심

² 《三毛流浪記》- 張樂平 1930~40대 상하이를 배경으로 三毛라는 어린 아이가 유랑을 겪는 만화 영화로 중국의 어린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³ 이혜영, <三毛小说选译>,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⁴ Goethe Institute - 독일 협회. 독일 Munich에 본부를 둔 독일어 및 독일 문화 보급기관

장병으로 사망하면서 그녀는 연이어 절망의 늪으로 빠지게 된다. 그로 인해 다시 한번 자살 시도에 실패하고 다시 유럽으로 유랑의 길을 떠나게 된다.

그녀에게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는 듯 하다. 오히려 그런 어려움 속에서 만나게 되는 환경을 즐기고, 더 나아가 새로운 현실에서 다시 또 한 걸음을 시작한다. 그녀의 글에서 나타나는 유랑 의식은 다음과 같이 묘사되었다.

인생은 한 편의 꿈과 같다. 많은 세월 동안 내가 마드리드에 있든 파리에 있든 베를린 혹은 시카고 또는 타이베이에 있든 아침에 깨어날 때면 항상 몇 초 동안 생각하게 된다. ‘나는 누구인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머릿속은 순간 새하얗져서 한참을 생각해야 ‘아 내가 여기 있구나! 깨달게 된다. 정말 나비가 내 꿈을 꾸는 것인지 내가 나비의 꿈을 꾸는 것인지 이렇게 어리둥절 한 채로 반 평생이 그렇게 지나가 버렸다.’⁵

스페인 청년 호세와의 결혼은 그녀의 인생에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 스페인 유학시절 마드리드에서 본인보다 7살이나 어리던 호세라는 어린 남학생을 만나게 된다. 둘은 서로 호감을 가지고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그러나 주변의 우려와 좋지 않은 시선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해 三毛는 호세와 헤어지기로 결심을 한다.

그러나 6 년이 지난 후, 호세는 어엿한 청년이 되어 三毛앞에 나타나 청혼을 한다. 오랫동안 이 날을 기다려왔다는 호세의 단호한 결심에 결국 三毛는 그와의 결혼을 결정한다. 이 후 두 사람은 스페인령이던 사하라 사막의 한 법원에서 결혼을 한다. 이러한 에피소드를 재미있게 기술한 작품이 《사하라 이야기(撒哈拉的古事)》⁶에 실린 <결혼 이야기(结婚记)>에 잘 나타나 있다. 사막 한가운데서 스페인 청년이 결혼을 위해 뛰어다니고 그것을 바라보는 행복한 여인 三毛는 아주 유쾌하고 흥미로운 시선으로 <결혼 이야기>를 써 내려갔다. 호세와 기상천외한 결혼식을 마치고 사하라 사막에서 둘은 행복한 신혼 생활을 보낸다. 그는 남편으로서 또한 위로자로서 그녀의 안식처가 되어 주었다.

《사하라 이야기(撒哈拉的古事)》에 실린 <사막의 중국식당(沙漠中的飯店)>은 이 시절의 에피소드를 작가만의 위트와 메타포를 사용하여 재미있게 묘사해 나간 작품이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주변 환경이 온통 사막인 매우 열악한 삶이었지만 三毛만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유목민적인 정신과 거기서 얻어지는 그녀만의 강한 희열을 발견하게 된다.

국적과 성향이 다른 남편과의 결혼생활에서 서로가 자유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방식을 찾아내며 그들만의 색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다. 그녀의 글에는 다음과 같이 당시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우리가 처음 살림을 합칠 때, 함께 살아가는 동행이 되길 바랐을 뿐, 둘 다 서로에 대해

⁵ 이혜영, <三毛小说选译>,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p.13.

⁶ 삼모, 《사하라 이야기(撒哈拉的古事)》: 썬마오 산문집, 막내집계, 2009

과분한 요구나 구속하려는 마음은 없었다....(중략)...많은 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 조그만 집에서 이리 저리 다니며 각자의 일을 했고 모퉁이에서 부딪치면 재빨리 몸을 돌려 비켜줄 때의 그 표정은 그림자에게 길을 비켜주는 것처럼 무표정했다. 더 많은 밤을 각자의 책을 안고 날이 밝을 때까지 매달리며 혼자서 책보고 크게 웃거나 말없이 눈물 흘려도 결코 “무슨 일이야? 미쳤어?”라고 묻는 법이 없었다.⁷

이미 그녀는 결혼이라는 굴레가 부여하는 기존관념을 초월하여 서로 자유로운 존재로 함께 길을 가는 ‘서로의 반쪽’이 아닌 ‘온전한 하나’가 함께 하는 생활을 실천에 옮겼다. 그녀의 모습은 “길을 내면서 달려가는 자만이 살 수 있다.”고 자신을 따르던 유목 민족을 독려하던 칭기즈 칸이 언급한 노마드적인 삶과 너무나 닮아 있다.

그러나 결혼한 지 5년 만에 남편인 호세가 급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하면서 三毛는 다시 한번 불행의 고통의 늪 속으로 빠져들고 만다. 그러나 무너진 자리에서 울고만 있지 않았다. 닥친 고통을 털고 일어나 다시 정신적인 새 초목지를 찾아나서는 유목민적인 삶을 선택한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친정 식구들이 있는 대만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곳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교편을 잡으며 고통가운데서 《萬水千年走機》, 《送你一匹馬》, 《傾城》, 《談心》, 《隨想》, 《我的寶貝》 등 많은 작품을 발표한다.

그녀가 어머니에게 쓴 편지에서, 자신이 절대로 고통 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슬픔이나 고통을 통해 인생에서 더 성숙해 진다는 내용의 글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자신만의 방식을 통해 고통 속에서 다시 발걸음을 옮겨 정신적인 유량을 지속하는 그녀만의 삶에 대한 의지였다.⁸

그러나 三毛도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의 하나였다. 힘든 삶의 역경을 헤쳐 나가기 위해 부단한 달음박질을 해 왔지만, 오랜 정신적인 고통과 고질적인 병증을 지속적으로 겪어내야만 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연이은 인간적인 불행과 고통의 구렁이 속에서 결국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삶의 의지를 놓아버린다. 1991년 한 병원에서 48세의 결코 많지 않은 나이에 자살로 생을 마감된다.

三毛는 독특한 소재와 유량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의 여정에서 얻어진 풍부한 경험을 유머러스하고 유쾌한 표현으로 작품에 써 내려갔다. 이로 인해 많은 독자들에게 신선한 도전 정신과 그녀만의 매력을 선사한다. 그녀의 작품들은 많은 독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서 ‘유량문학’이라는 문학의 한 분야가 만들어내기도 했다. 특히, 그녀의 노마드적인 삶에 대해 많은 젊은이들이 열광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고통과 유량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의 방식과 작품들은 독자들의 공감을 불러 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에게 ‘三毛熱’을 일으키며 사랑 받는 작가로 남아 있다.

⁷ 이혜영, <三毛小说选译>,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p.33-44.

⁸ 이혜영, <三毛小说选译>,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p.5.

전혜린은 불꽃처럼 사다간 ‘광기의 천재’로 불리는 한국의 여류 작가로, 평생동안 가슴에 자리잡았던 ‘절대 평범해선 안 된다’는 명제를 실천하며 살았던 한 시대 청년들의 대표적인 아이콘이었다. 그녀는 1934년 일제 강점기에 평안남도 순천에서 8남매의 장녀로 태어난다. 전혜린의 아버지는 29세에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 행정 양과에 합격한 수재였다. 당시 대부분의 국민들이 빈곤하고 피폐한 삶을 살던 시대 상황이었지만, 아버지의 영향으로 상류층의 생활을 누린다. 어릴 때부터 뛰어나게 명석했던 그녀는 아버지에게 절대적인 존재였고, 아버지 또한 그녀에게 신적인 존재였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직장을 따라 여러 곳을 옮겨 다닌 전혜린에게 ‘고향’이라는 통념은 가지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자신을 ‘고향이 없는 아이’ 또는 ‘아스팔트 킨트 (Asphalt kind : 도시에만 살아서 고향이 없는 아이들)’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때부터 전혜린은 유랑과 방랑에 익숙해 가고 있었던 것 같다.

그녀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최고 명문대학인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에 입학한다. 수학 점수가 0점이 나왔으나 다른 과목의 성적이 월등하게 뛰어났기 때문에 무난히 합격했는데 수학 점수를 빼고도 전체 2등이라는 천재성을 보인다. 그러나 자신의 전공인 법학보다 고든이나 엘리엇에 관한 문학 수업을 도강하며 문학에 빠져들었다. 날카로운 그녀의 감성과 의식은 문학에서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었다. 이러한 딸의 행동은 아버지와의 관계에 점차 불화의 벽을 쌓게 된다. <목마른 계절>이라는 글에서 그녀는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회고하고 있다.

흔히 딸이 그렇듯 아버지를 숭배하고 있었고 두려워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마음에 들고 싶다는 욕망이 의식 밑에서도, 또 의식 표면에도 언제나 있었다. 아버지로부터 칭찬받고 싶다는 마음이 실현될 때마다 나는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행복 했었다. 이 욕망은 아직도 내 의식 밑의 심층에 남아 있다....(중략)...의식 세계에서 나는 결국 언제나 아버지를 대상으로 지식을 쌓아 올렸던 것 같다. 마치 제단 앞에 향불을 갖다 쌓듯.⁹

1955년 가을, 그녀는 독일 뮌헨대학으로 유학을 떠난다. 강렬한 인식욕과 날카로운 감수성을 가진 전혜린은 전공을 바꾸어 문학과 철학을 공부하게 된다. 니체의 연인이었던 ‘루 살로메’에 열광했고 수많은 문학 작품과 철학에 대한 깊은 몰입을 한다. 그러나 한국인 유학생이 거의 없었던 탓에 외로움과 고독에 시달렸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궁핍이 일상이었다. 한 연구 논문은 이 당시를 ‘전혜린은 여성으로서의 자아 인식에만 눈 뜬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부에 고여있었던 반항적 기질의 배출 방법도 독일에서 찾아냈다. 고국의 시대적 우울과 문화적 혼란, 그리고 자기 표현방식에 고민했던 전혜린은 독일에

⁹ 이명지, <전혜린 수필 연구>,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p.25.

와서 독일 학생들의 자유로운 모습에서 자기 실존을 지키려는 반항 아닌 반항을 배우게 된다.’¹⁰라고 적고 있다. 게다가 외국 학생들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순수한 정신과 오만한 패기로 살아야만 했다. 때로는 일주일간 먹을 것이 없어 물만 마시며 버텨내기도 한다. 그러나 유복한 생활을 하던 그녀에게 이처럼 처절한 상황의 고풍은 자의식과 삶에 대한 하나의 색다른 방식의 사유를 갖게 한다.

6개월 후 독일로 뒤따라 온 약혼자와 결혼을 한다. 결혼마저도 일탈을 위해 전 생애를 질주한 전해린의 파격이었다. 그러나 일탈은 결국 권태를 초래하기 마련이고 그것을 힘들어하는 그녀는 새로운 일탈을 추구한다. 그녀가 쓴 작품에서 “임신이나 하고 싶다. 모든 과제에서 도피하기 위해. 보다 가정에 뿌리 깊어지기 위해. (<일기로부터의 단상> 1964.4.12)”¹¹라고 그녀의 유학중의 일탈을 표현해 냈다. 그리고 그녀는 딸을 출산한다. 남편과 딸이 함께 한 독일에서의 결혼 생활은 궁핍하지만 행복한 시간이었다.

4 년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전해린은 여러 대학에서 독일 문학 강의를 맡는다. 당시 매우 보수적인 대학 사회에서 26 세의 여성이 교수로 강의를 한다는 것은 획기적인 일이었다. 주변의 우려와 눈총을 견디고 누구도 가지 않았던 길을 걸어가야 했던 그녀의 현실은 불모지에 던져진 유목민과 같았다.

그녀의 짧은 결혼생활이 이혼으로 막을 내린다. 그리고 찾아온 여러 차례 불 같은 사랑을 하게 된다. 한번은 자신이 근무하던 대학에 다니던 연하의 제자와 깊은 사랑에 빠진다. 그것은 대 사건이었다. 그러나 그 제자의 어머니가 찾아와 전해린 앞에 무릎 꿇고 아들과 헤어져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 이를 받아들인 전해린은 “내가 날아올 땐 난 내가 독수리인 줄 알았는데 날아갈 때 보니 참새에 지나지 않았어.”라며 연하의 연인을 떠나 보낸다. 이렇듯 그녀의 자의식은 기존 관념의 대립을 향해 다시 마주서서 걸어가야만 했다.

1965년 1월 어느 일요일 아침, 그녀는 31세의 삶을 스스로 마감한다. 약물과다복용이 자살의 원인이라고 전해진다. 그녀의 평소 행동과 유작에서 자살에 대한 동경을 언급한 부분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다.

그녀는 여성 운동가도 아니었고 사회 개혁을 부르짖는 혁명가도 아니었다. 사회에 대한 저항 의식보다는 자신 내부의 문제 의식과 가치 있는 삶에 대해 고뇌하고 투쟁한 존재였다. ‘절대로 평범해서는 안 된다’ 는 그녀만의 명제를 품고 정신적인 초목지를 찾아 어떤 거친 길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처절한 노마디즘의 삶이 전해린의 삶이었다. 전해린이 남긴 저서들로는 하인리히 뵐의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프랑소와즈 사강의 《어떤 미소(1956)》, 루이제 린제의 《생의 한 가운데서(1961)》 등 다수의 독일 문학 번역 작품들이 있다. 그리고 그녀의 유고 수필집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1966)》와 일기, 서간 등을 묶은 《이 모든 괴로움을 또 다시(1968)》가 있다.

¹⁰ 이명지, 위의 논문, p.24.

¹¹ 이명지, 위의 논문, p.37.

3. 동질성의 원인

대만과 한국이라는 각기 다른 국적을 가지고 있던 三毛와 전혜린은 삶 자체가 매우 닮아 있다. 더구나 두 사람의 행적을 추적해 보면 놀라울 만큼 많은 공통점을 발견해 내게 된다. 그렇다면 그들의 삶과 작품에서 드러나는 노마디즘 동질성의 원인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첫째, 두 사람 모두 어릴 때부터 상류층의 생활을 하였고 이미 물질적인 풍요로움으로 내적 만족을 누릴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오히려 물질의 풍족함 속에서 더 궁핍해진 내면의 세계에 대한 갈급함이 두 작가의 유랑의 발걸음을 재촉했다고 본다.

둘째, 두 작가가 비슷한 시기의 청년기에 독일 유학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당시 현대 철학의 중심지였던 독일의 현대철학에 근거한 사상과 문학에 눈을 떴다. 이러한 사상과 관념은 결박과 정신적 고통이 심한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일어나 과감하게 유랑의 길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

셋째, 그들이 살았던 시기였던 1940년 이후는 전 세계가 정치와 사회적 변혁이 팽배했던 시기이다. 따라서 반복되는 사회적 혼란기에 자의식을 붙들 수 밖에 없는 정체성이 필요했다. 결국 대면해야 하는 불안정한 삶에서 자신만의 의식을 실현해 나가야만 숨을 쉴 수 있는 정신적 고통의 시기를 살아야만 했던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

넷째, 그녀들에게는 불행과 정신적인 고통이 끊임없이 닥쳐왔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과 이별 그리고 사회적인 통념 앞에서 그들의 좌절은 계속되었다. 더 나아가 사회의 이단아로 질시를 받았다. 이 통념을 넘어서지 않으면 그들이 설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투쟁하듯 길을 내며 나가야 했다.

다섯째, 그녀들은 천재적인 기질을 타고 났다. 그 천재성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척도로는 규정하거나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그녀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평범하고 일상적인 관념과 삶은 지루하고 오히려 불안정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원인으로 두 작가는 자신들의 초목지를 찾아 나서는 유목민적인 삶을 살아야만 했을 것이다.

그러나 두 작가의 노마디즘에서는 근본적으로 이질적인 측면도 찾아볼 수 있다. 三毛의 경우 실제적인 삶의 유랑성이 강했다, 유럽의 여러 나라를 비롯하여 미국과 대만을 넘나들며 불행과 고통의 상황에 직면하면 환경을 바꾸어가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간 노마드였다. 그러나 전혜린의 경우 어릴 때부터 자의식을 붙들고 자신과 현실과의 괴리에서 고통하며 그 해결을 위해 끊임없는 정신적 노마드로서 살았다는 점에서 전자와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4. 두 작가의 동질적 노마디즘이 주는 의미

연구 대상인 두 작가의 삶은 끝없는 육체적, 정신적 유랑의 삶이었다. 그것은 작품을

통해 많은 독자들에게 긍정적이며 또한 부정적인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긍정적인 측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안주하지 말고 과감하게 떨치고 일어나 길을 내며 나가는 과정을 보여 주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은, 그 용감한 유량으로도 결국 삶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다. 왜냐하면 두 작가의 의식에 공감하는 많은 독자들에게 좌절감을 주는 원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오랫동안 우리들 곁에 있었다면 더 풍성하고 다양한 작품들을 선사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들의 행적이 이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하고 맹목적인 숭배나 동경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더구나 그러한 삶을 무조건적으로 모방하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그 이유는 각 사람들의 의식과 삶의 배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인생의 실패자라고 단적으로 비난해서도 안 된다. 자신들만의 자의식과 삶을 붙들고 그것을 몸으로 처절하게 살아낸 유목민적인 삶은 누구나 쉽게 선택하고 실천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녀들의 삶의 방식과 의식 세계가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사회적인 냉대와 눈총으로도 막지 못한 자신들만의 파격적인 선택과 삶을 살았던 인간적 용기와 도전에 대한 의지는 큰 의미로 인정받아야 한다.

5. 나가면서

이상에서 우리는 두 작가의 삶과 생애에 나타난 노마디즘의 동질성과 그 원인 및 그것들이 제시하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전 세계에는 급변하는 사회가 대두되고 그러한 상황에서 떠오르는 화두중의 하나가 노마디즘, 즉 유목주의다. 우리가 속한 이 세계는 디지털기기를 가지고 지구상 모든 곳을 마음대로 돌아다니며 다양한 분야를 섭렵하고 다니는 IT노마드에서부터 문학을 비롯한 예술분야, 경제분야, 과학분야 등 모든 영역에서 끊임 없이 노마드의 정신을 요구하고 있다. 마치 두 작가가 살아갔던 삶의 방식이 이제는 하나의 길이 되어 우리 앞에 서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미 반세기 전에 지구의 한 구석에서 부조리하고 획일적인 기존의 고정 관념과 사회 의식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가지고 몸부림 쳤던 두 작가의 작품과 생애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남들과는 다른 자신들의 의식 세계를 존중하고 그것을 삶의 방식으로 과감하게 선택하여 유량을 두려워하지 않고 길을 내면서 걸어간 선구자적인 족적은 크다고 하겠다. 그로 인해 뒤따르는 현대의 유목민들이 좀 더 수월하게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다.

획일화되고 구조화된 의식과 삶을 벗어나 자신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육체적, 정신적 유량의 길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三毛와 전해린의 생애와 작품들이 남기는 메시지는 강하다. 즉, 막다른 길 앞에서 다시 길을 내며 살아가야만 하는 나약한 현대인들에게, 유목민의 삶으로 걸어가는 것이 또 하나의 선택이라고 빗장을 열어 길을 보여준 것이다. 앞서 달려갔

던 두 사람의 노마드 정신은 오늘도 많은 대중들 삶 속에서 진행 중이다.

참고 자료

- [1] 三毛, 《雨季不再來》, 北京十月文艺出版社
- [2] 三毛, 《稻草人手記》, 北京十月文艺出版社
- [3] 三毛, 《撒哈拉的古事》, 北京十月文艺出版社
- [4] 삼모, 《사하라 이야기 (撒哈拉的古事): 썬마오 산문집》, 막내집게, 2009
- [5] 삼모, 《호느끼는 낙타 : 썬마오 산문집》, 막내집게, 2009
- [6] 이해영, <三毛小说选译>,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7] 박명희, 허수아비 수기(稻草人手記)》, 계명대학교 통·번역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 [8] 전해린,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서 출판, 2004
- [9] 이덕희, 《전혜린》, 이마고, 2003
- [10] 조옥정, <전혜린 수필 연구>, 한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11] 안태진, <다중지능 이론의 관점에서 본 전해린의 삶>,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12] 장정자, <페미니즘 시각에서 본 전해린의 자아의식 연구-수필, 편지, 일지 분석을 중심으로>, 계명대 여성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13] 이명지, <전혜린 수필 연구>,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관련 사이트

<http://www.naver.com/>

